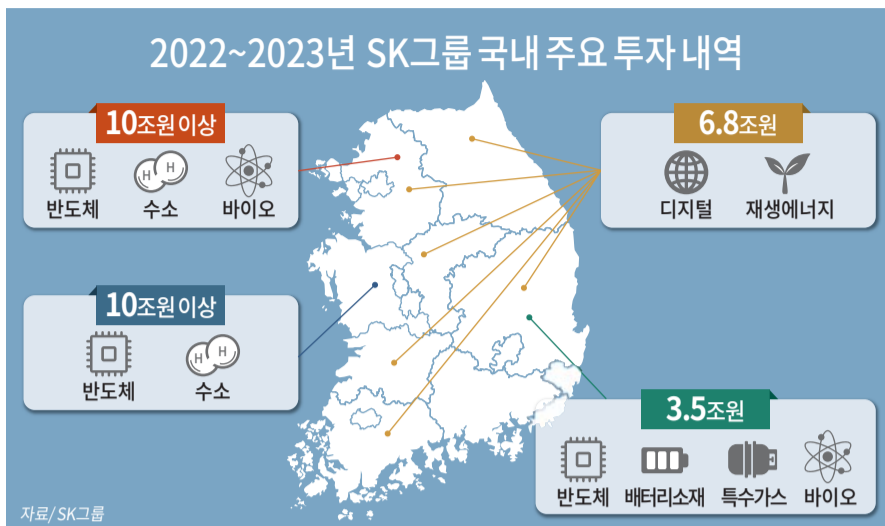


지방경제 활성화 팔 걷은 SK그룹... 5년간 67조 통 큰 투자

5년간 국내 총 179조 투자
비수도권 대규모 투자로
국토 균형발전 등에 기여
반도체·배터리·바이오 집중



SK그룹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권을 제외한 지방에 향후 5년간 67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SK그룹은 또 올해와 내년까지 기존 국내 공장을 증설하거나 신규로 착공하는 등 시설 투자에 모두 73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핵심 성장동력인 ▲반도체(Chip) ▲배터리(Battery) ▲바이오(Bio) 등 이른바 BBC 산업의 국내 기반 시설과 기술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SK그룹 주요 관계자들의 기술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 향후 5년간 R

&D에 25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SK그룹은 향후 5년간 국내에 투자하기로 한 179조원 가운데 비수도권에 67조원을 투자해 지방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기로 했

다. 비수도권 투자 분야는 구체적으로 ▲반도체, 소재 30.5조원 ▲그린 22.6조원 ▲디지털 11.2조원 ▲바이오, 기타 2.8조원 등으로 SK그룹의 핵심 성장동력에 맞춰져 있다.

SK그룹은 최근 SK하이닉스가 향후 5년간 청주에 신규 반도체 생산 공장인 M15X(eXtension)에 모두 15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을 비롯해 SK실트론, SK(株) 머티리얼즈, SK E&S 등의 사례가 대표적인 비수도권 투자 사례라고 밝혔다.

특히 SK그룹은 최근 계속되는 경제 위기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요 관계사의 성장기반인 국내 생산시설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와 내년까지 2년동안 모두 73조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단행될 국내 투자 역시 ▲반도체, 소재 48.7조원 ▲그린 12.8조원 ▲디지털 9.8조원 ▲바이오, 기타 2.2조원 등 BBC 산업에 집중돼 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국에 약 5조원을 투자

해 5G 등 유무선 통신망을 확충기로 했다. SK E&S는 내년까지 전국에 약 1조원 이상을 투자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설 및 도시가스 시설을 구축한다.

한편 SK그룹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1만 3,000명 이상을 채용하기로 했다. 올해 채용규모는 지난해 채용 규모인 8,500명보다 50% 늘어났다.

SK 관계자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SK그룹 핵심 전략산업의 생산 기반인 국내 시설을 지속적으로 신·증설하고, R&D에도 대규모로 투자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국내 고용을 창출하고 소재·부품·장비 등 이른바 소부장 협력업체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된 중장기 투자는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K-UAM 드림팀, 2025년 제주 UAM 상용화

(도심항공교통)

SKT·한국항공공사·한화시스템
제주도와 ‘UAM 시범사업’ 협약
공항·관광지 잇는 시범운행 위한
이착륙장·UAM 관리 시스템 구축



SK텔레콤·한국항공공사·한화시스템으로 구성된 ‘K-UAM 드림팀’ 컨소시엄은 제주특별자치도와 UAM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 유영상 SKT CEO, 윤형중 한국항공공사 사장. /SKT

SK텔레콤이 포함된 K-UAM드림팀이 2025년 제주에서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추진한다. K-UAM드림팀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최초의 성공 사례를 만드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SK텔레콤·한국항공공사·한화시스템으로 구성된 ‘K-UAM 드림팀’ 컨소시엄이 제주에서 오는 2025년 국내 최초 UAM 상용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제주공항과 주요 관광지 잇는 시범운행 서비스를 위해 버티포트(이착륙장)와 UAM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K-UAM 드림팀’은 제주특별자치

도와 ‘UAM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4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석한 각 사 대표들은 민간기업, 공기업, 지자체의 강점을 융합하는 초협력적 사업모델로 UAM 상용서비스의 국내 최초 성공

사례를 만드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컨소시엄과 제주도는 안전한 운항환경과 충분한 관광수요를 가진 제주에서 현재의 항공 시스템, 인프라 등을 수정·보완해 사업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제주도의 국내 최대 관광지라는 입

지적 측면은 대중 수용성 확보에 용이하고, 한국항공공사가 보유한 제주공항과 항행시설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신속한 상용화가 가능하다.

제주 UAM 시범사업을 위해 ▲SK텔레콤은 美 조비 에비에이션과 협력 체계 기반 UAM 서비스 제공과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운영, UAM용 통신 시스템 등을 담당 ▲한국항공공사는 UAM 버티포트 구축, 공사가 운영하는 항행안전시설 인프라 등을 활용GO UAM 교통관리서비스 제공 ▲한화시스템은 UAM 기체개발과 제조·판매·운영·유지보수(MRO), 항행·관제 솔루션 개발 ▲제주도는 UAM 운용부지·인프라 제공, 인허가·행정지원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환경 및 제주 UAM 생태계를 조성한다.

컨소시엄은 또 정부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 챌린지 1~2단계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UAM 수직 이착륙장인 버티포트 등 지상인프라를 구축한다. 현재 세계 주요 도시가 2024~2025년 UAM 상용화를 계획 중인 가운데 제주

도 시범사업은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영상 SK텔레콤 CEO는 “친환경 관광명소인 제주도를 UAM의 혁신 기반으로 성장시켜 미래 모빌리티의 서비스의 게임 체인저로 도약하겠다”며 “K-UAM 드림팀 컨소시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형중 한국항공공사 사장은 “한화시스템과 SK텔레콤이 보유한 미래 기술·자본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융합하는 초협력적 사업 모델로 우리나라가 UAM 산업의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는 “K-UAM 드림팀 컨소시엄이 관광·문화자원이 집약된 제주에서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심리적 허들을 낮추고, 미래 모빌리티 패러다임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윤정 기자 echo@

항공업계, 유류할증료 하락에 ‘웃고’ 고환율에 ‘울고’

유류할증료 두 달 연속 하락세
방역 완화에 해외여행 수요 ↑
원달러 환율 1400원대 코앞
여행 활성화 회복세 ‘찬물’

증료는 8월 정점을 찍고 9월부터 꺾인 모습이다. 10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운임 기준 1만5400원으로 이달 책정된 1만8700원에 비해 3300원 감소했으며, 두 달 연속 하락 추세를 보였다.

이 같은 유류할증료 하락세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항공사들은 운항비용의 30%를 차지하는 비싼 항공유가 여전히 부담스럽지만 역대 최고치였던 6월 배럴당 166.4달러 보다는 낫다는 입장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올 변수와 산유국들의 만들어낸 변수가 상존하지만, 국제유가(WTI) 가격 변화 추세에 따라 함께 하락 안정화 궤도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달간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을 기반으로 발표된다. 10

월이나 11월에 낮은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승객이라면 유류할증료가 낮아질 때마다 1월을 노리면 조금이라도 여객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여기에 국내외 코로나19방역 조치가 한층 완화되며 출입국 시 발생하는 비용도 절감되고 있다. 평균적으로 8~10만원 내외로 들었던 국내 입국 전 PCR이 폐지되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도를 끌어 올리는 효과를 발휘했다.

하지만 비상을 준비하는 항공업계의 발목을 잡은 건 다른 아닌 ‘고환율’이다. 원/달러 환율이 14일 13년 5개월 만에 1390원 선을 돌파하며 우려했던 ‘1400원대’ 진출을 코앞에 두고 있다.

달러 초강세인 ‘킹달러’ 기조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강도 높은 긴축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경제계의 분석이다.

기재 리스비와 항공유를 달러로 지불



지난 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뉴스1

하는 항공사는 달러가 오르면 실적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대한항공은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약 350억원, 아시아나항공은 284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항공사는 달러를 기반으로 영업이익과 손실이 잡히기 때문에 환율상승은 악재”라며 “항공권 가격은 물론 여행지로 나가서 쓸 환율이 부담스러워 승객들이 여행을 주저하게 될까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13일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기간(8일~12일)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한 여객(출·도착)은 총 31만9824명으로 지난해 추석 기간이었던 9월17일에서 22일보다 512.2% 급증하는 회복세를 보였다.

항공업계는 환차손은 걱정스럽지만 이러한 회복세에 힘입어 ‘늦여름’ 프로모션에 집중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하정운 기자 zelkova@